내 안의 가족사를 대변하는지도 모른다.
우리 가족의 정체성을 되짚어 보는 휴먼 드라마의 탄생!
가슴 속의 거짓과 진실을 확인해 가는 보이지 않는 공감 그리고…

사랑티켓 참가작
무대지원사업 선정작

양파

2006.6.17(토) ~7.16(일) / 26회 공연

평일 7시 30분 / 토, 공휴일 6시 (월요일 쉼)

문의 : T. 051-611-8518

PHOTO BY 유민정 · 배기정

- 장 소 : SH공간소극장
  www.shgonggan.com
- 관람요금 : 일반15,000원 / 청소년 12,000원
- 제 작 : 극단 사계
- 원 작 : 김수미 / 연출 : 김만중 / 조연출 : 유소정
- 기 획 : 전상배 / 스텝 : 김선미
- 출 연 : 호민, 구민주, 양진억, 황자미
- 주 최 : 극단 사계
- 주 관 : (주)코엔
- 후 원 : (복)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해상관광개발, JB웨딩, 다우사진학원, MEGA MART 메가마트, Busan Aquarium 부산아쿠아리움, 바다무대, 코코펀
- 예매처 : Ticket365, 부산은행, 인터파크

Synopsis

작가의 글

껍질을 벗길수록 눈물이 난다.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질문을 던졌다니 답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침묵도 답이라는 걸 알았다면 쓸쓸함이 적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질문이 어려웠나 싶어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 길래 들려주는데 듣는 이가 허공입니다.

사랑한다고
넘치게 사랑한다고 했더니
나의 사랑은 그에게 상처랍니다.

아프다 길래 안아주려고 했더니
칼날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철철 흐릅니다.
이 칼이 당신 겁니까? 내 겁니까?

껍질을 벗길수록 눈물이 납니다.
다행입니다.
눈물이라도 흘린 덕에 당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작가 김 수 미

- 한국연극협회 극작 분과 회원
- 한국희곡작가협회 회원
- 1997년 '부러진 날개로 날다'
  -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 1998년 '귀여운 장난' - 창작마을 희곡상
- 1999년 '문' - 옥랑 희곡상
- 2000년 '양파' - 한국희곡 신인 문학상

초연 때부터 위의 글을 작가의 글에 실었습니다.
양파가 거듭 태어날 때마다 싣고 싶습니다. 몇 번 더 쓸 수 있을지 상상해 봄도 저에게는 꽤 즐거움입니다.
바다를 무지 좋아해서일까요? 바다를 가진 부산과 인연이 많은 듯 합니다.
겨울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온 몸에 칼날로 난도질을 해대는 듯 합니다. 한 때는 그 고통을 즐기려 바다에 뛰어들곤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게는 연극이 바다의 모습으로 날 받아줍니다.

1, 화. Angry
분노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제대로 된 분노는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때로는 살아가는 힘이다.
1, 화. 花 Flower
꽃은 아름답지만 때때로 아름답지 못할 때가 있다. 예술은 정해진 아름다움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서도 안 된다. 그 아름다움은 그저 인간의 이기적인 판단으로 기준을 세운 것이므로 동전의 양면처럼, 성과 속이 함께 있는 꽃처럼, 추함과 아름다움을 공존시키는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지향한다.
1, 화. 火 Fire
뜨겁게... 뜨겁게... 뜨겁게... 태우자.

전 그렇게 연극과 놀고 싶습니다. 놀고 있습니다. 놀고자 합니다. 그렇게 놀자는 동지(극단 '화' 대표)도 있어서 흥도 납니다.
여러분들과 그 흥을 나누고 싶다는 욕심을 맘껏 부려 봅니다.
극단 사계와 인연이 깊은 배우 분들과 새로 인연을 맺는 배우분들과 작업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작품을 보실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게 바다를 주셔서...

Synopsis

작품소개 및 줄거리

양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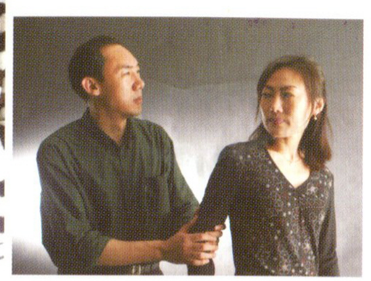
한가족이 간직한 슬픈 사랑의 노래

내 안의 가족사를 대변하는지도 모른다.
우리 가족의 정체성을 되짚어 보는 휴먼 드라마의 탄생!
가슴 속의 거짓과 진실을 확인해 가는 보이지 않는 공감
그리고…

가부장적 가족이란 형태의 틀 속에 스스로 속박되어져 진실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한 채 양파처럼 알맹이 없는 껍질들을 서로 벗겨내다가 결국 소멸해버리는 기존의 비극을 다룬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아내를 붙잡기 위해 폭력과 권위의 힘으로 가족을 옭아매는 아버지.
그 폭력을 견디며 자신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보상받기 위해 아들에게 집착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벌어진 앙금과 갈등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라면서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 있는 딸.
어머니의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나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지만 아버지의 계속되는 폭력 속에서 죽음을 꿈꾸는 아들.

이들은 서로에게 항상 무엇을 원하며 행한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가족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무감 뿐. 그 갈망과 행위 속에 이미 타인의 바램따위는 없다.

껍데기만 남는다. 그렇게 유지해 온 25년의 가족사가 하나 둘 씩 껍질을 벗겨내며 그 아픔들이 드러난다. 하지만 아무리 벗겨내어도 서로를 진심으로 이어줄 알맹이는 어디에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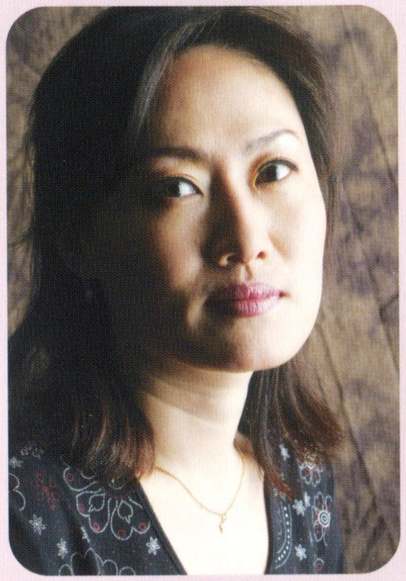


제도적 가족의 끈을 부여잡고 허위의 껍질로 서로를 이해했던 한 가족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CAST

극단 아센 상임 연출. 연출과 연기를 병행하며, 자신의 끼를 발산하고 있는 그가 2006년 연출가 김만중과 호흡을 맞추며 "양파"에서 갈등하는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멋진 중년의 연기를 펼쳐 보인다.

호 민 / 아버지 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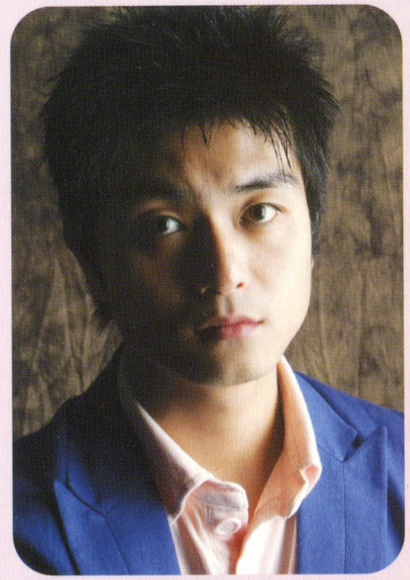


극단 아센 대표. 현재 40대 여자 연기자의 대표적인 1인으로 비극과 희극을 오가며 능력을 과시해 왔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모습은 진지한 연극에서 빛을 발한다.

구 민 주 / 어머니 役

2004년 학생의 신분으로 극단 사계를 통해 데뷔하며, 곧바로 "마술가게"와 2005년 "겨울 바다 살인 교향곡" 최고의 코메디 연기를 선보였고, 뮤지컬 결혼 작품을 통해 거듭 성장하고 있는 그녀가 "양파"라는 작품을 통해 또 한번의 도전장을 내민다.

황 자 미 / 딸 役



경성대 연영과를 다니며 극단 미지의 작품 "브릿지" "그러나 낯설지 않은" 등에 참여 해왔던 그가 졸업을 앞두고 극단 사계 "양파"를 통해 야심찬 신인 연기자로 그 실력을 선보인다.

양 진 억 / 아들 役

STAFF

제작 허 영 길

연출 김 만 중

조연출 유 소 정

기획 전 상 배

음향 김 희 지

스텝 김 선 미

Synopsis

연출의 글

공간 소극장을 살려야 한다. 극단 사계를 살려야 한다.
연극만을 하더라도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마음먹으면서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나야만 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기에
그들이 좋아할 만한 작품들만을 찾았고
그들이 선뜻 표를 던져줄 만한 스타일을 만들어왔다.
많은 지인들과 후배들이 니 연극스타일은 다 어디 간거냐라고 물어올 때
난 당당히 지금 이런 것들이 내가 연극으로만 살고자 결심한 나의 스타일이라고 대답했다.
그런 내가 지금 모험을 한다.
부산관객들이 선뜻 표를 던지기 어려운 제목에 무거운 주제까지...
호흡 맞는 배우들과 모처럼 즐겁게(?) 작업을 하면서
몇몇 아는 관객분들께는 이 진지한 작품이 망하면 앞으로는 가벼운 것만을 하는 김만중을 보게될 것이라고 협박까지 하면서
일단은 한번 본 관객이 감동을 하면 더 많은 관객이 찾아올 것이라고 자위도 해보면서
이 작품이 진지한 연극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생활이 가능한 연극이 되기를 바라며
작품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즐겁게 우리를 바라봐 주신 김수미 작가님. 연출의 객기를 믿고 따라와 주신 호민, 구민주, 양진억, 황자미, 배우님. 먼 외도에서 돌아와 아직은 익지 않은 연극생활을 시작한 유소정 조연출.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나의 이상 실현을 묵묵히 도와주고 있는 전상배 기획실장과 그 똘마니 박선미. 나의 연극 이상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허영길 선생님. 그리고 그 치기넘치는 소리를 이해해 주신 김형민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관객님들.
이 모든 분들과 이 작품의 시작을 같이 하고 월드컵 특수를 뚫고 나아가야 할 마지막 성공의 순간까지 같이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추신 : 언제나 사회의 뒤안길에서 걸어가야 하는 예술과 문화인들. 일반적 개념의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망상의 창조물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것들이 진정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일까? 이제는 산업이 되어버린 영화가 가는 길을 멀리서 물끄러미 부러워하며 일반관객들만이 아닌 많은 정치, 경제인들이 배고픈 길을 선택한 문화, 예술인들의 창조물 안에 숨어 있는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는 마음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Snapshot

양파의 한장면!!!